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신 스틸러…가수 출신 손담비의 재발견

섹시함 뺀 백치미 매력 손담비 연기력 '미쳤어'



연기자 손담비가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에서 숨겨둔 진가를 드러내며 드라마 인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팬엔터테인먼트

느릿느릿 어눌한 말투로 팩트폭격
친근한 매력으로 시청자 사로잡아
과거 연기력 논란 딛고 제2전성기

손담비의 변신이 눈부시다. 섹시가수로 스타덤에 올라 연기자로 전향한 이후 가장 화려한 시절을 맞고 있다. 방송 중인 KBS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인기의 또 다른 주역으로 각광받으면서다. 이전까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신선함과 색다름의 매력으로 시선을 붙잡는다.

손담비는 2016년 SBS '미세스 캅2' 이후 3년 만의 드라마 출연작인 '동백꽃 필 무렵'에서 주인공 공효진·강하늘과 함께 맹활약하고 있다. 손담비의 가세로 드라마는 가장 최근 방송일인 23일 16.9%(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자체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극중 손담비는 동네 작은 술집의 아르바이트생 역을 맡아 연쇄살인범 '까불이' 못지않게 이야기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백치미를 풍기면서도 어떤 상황이든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촉각으로 웃음을 안긴다. 느릿한 행동과 어눌한 말투로도 할 말을 다 하는 '팩트 폭격기'의 성격도 시청자에게 통쾌함을 전달한다. 기존의 섹시미를 벗고 촌스러울 정도의 자연스러움과 평범함으로도 친근한 매력을 높이고 있다. 3일 방송분에서 뒷모습이었지만 바닷가 바위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는 장면은 시도 자체만으로도 파격적이었다는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손담비가 맞춤옷을 입은 것처럼 캐릭터를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시청자는 새로운 발견의 재미를 느끼고 있다. 손담비는 2007년 가수로 데뷔해 이듬해 '미쳤어'라는 노래를 히트시키며 전성기를 누렸다.

이후 가수활동에 집중하다 2011년 MBC '빛과 그림자'를 시작으로 연기무대에 나섰다. 2014년 KBS 2TV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와 '미세스 캅2'에 출연했다. 한 때 연기력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 부담의 짐을 조금씩 덜고 있기도 하다.

소속사 키이스트 김선희 실장은 24일 "평범하지 않은 사연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어서 이를 호감 있게 표현하는 데 가장 주력했다"며 "의상과 헤어스타일은 물론 캐릭터와 어울리는 목소리와 말투를 찾기 위해 신경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한국영화 100주년 축제 광화문광장으로 모여라

1919년 10월27일 연극과 영화를 결합한 '연쇄극'의 이름으로 '의리적 구토'가 선보였다. 단성사 운영자 박승필이 내놓은 5000원의 제작비로 만들어졌다. 영화계는 이날을 '영화의 날'로 정해 기념해왔다. 그리고 올해는 '100년 한국영화사'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더한다. 이번 주말 서울 도심의 너른 공간은 한국영화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의 희망을 투사하는 또 하나의 스크린이 된다.

막은 이미 23일 서울 종로구 묘동 단성골드빌딩에서 열렸다. 한국영화의 역사가 시작된 곳, 단성사가 영화역사관으로 변모하며 한국영화 100년사의 다양한 풍경을 한 데 모으며 관객을 맞기 시작했다.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회' 공동위원장인 이장호 감독은 이날 "한국영화 100년의 뿌리, 이제 1000년의 숲으로 간다"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는 26일과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다. 26일 낮 12시 '영화 촬영현장 재현 프로그램'이 막을 열면서 관객과 함께하는 영화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부산행'의 좀비와 '히말라야'의 산악인 특수분장과 특수효과 등을 체험하며 이를 촬영·편집한 100초짜리 영화도 만들 수 있다. 또 100인의 감독이 만든 100초 단편영화 100편이 상영되고, OST를 감상하며 다양한 한국영화 포스터도 볼 수 있다.

절정은 27일 오후 6시30분 펼쳐지는 음악회이다. 배우 김병춘이 변사로 나서 '의리적 구토'를 재현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가수 김윤아와 김태우, 임희숙 등과 성악가 박정민, 박지민, 김수연 등이 축하무대를 꾸민다. 배우 김지미, 안성기, 박중훈, 전도연 등이 관객에게 인사를 전하고 래퍼로도 활동 중인 양동근도 무대에 선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고 신해철 5주기 기리며…'유플래쉬' 유재석, 깜짝 추모 무대

미발표곡 '아버지와 나 파트3' 연주
26일 MBC '놀면 뭐하니?'서 공개

MBC '놀면 뭐하니?'로 드러머에 도전한 방송인 유재석이 가수 고 신해철을 추모하는 무대를 꾸민다. 특히 신해철의 미발표곡을 연주할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유재석은 신해철의 5주기를 앞둔 26일 무대를 공개한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앞서 유재석은 10일 경기도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놀면 뭐하니?' 녹화를 겸한 드럼 독주회를 열었다. '놀면 뭐하니?'의 한 코너인 '유플래쉬'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한 무대다. 유재석은 신해철의 미발표곡



유재석

'아버지와 나 파트3'을 연주했다. 약 2개월 동안 드럼을 배우며 가수 유희열, 이적, 이상순 등과 함께 컬래버레이션 음원을 만든 경험을 살려 400여 방청객 앞에서 곡을 선보였다. 이번 무대는 녹화에 참여한 가수들에게도 비밀에 부쳐진 깜짝 이벤트다. 특히 고인이 생전 이끌었던 그룹 넥스트의 멤버들과 연출자 장우성 PD의 인연이 무대로 이어졌다.

'아버지와 나 파트3'은 2004년 녹음된 곡으로 앨범에 수록되지 않아 15년 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2017년 뒤늦게 이 노래가 발견됐다. 메인 연출자 김태호 PD는 24일 "장우성 PD가 그룹 넥스트의 멤버인 김동혁으로부터 '미발표곡 데이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고인 유가족의 허락을 받아 유재석의 독주회 무대에 이 곡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노래 '날아라 병아리'를 들으며 힘든 시절을 위로 받을 때가 있었다"는 유재석의 의지도 힘을 보탰다. 유재석은 19일 방송분량에서 고 신해철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다음 생에도 친구로 태어나 줘"라고 말해 시청자의 가슴을 울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4년 만에 재결합 '브아걸'…리메이크 앨범 컴백

28일 새로운 앨범 '리바이브' 발표
기존 히트곡 브아걸 색깔로 재해석

4년 만에 재결합하는 4인조 여성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제아·나르샤·미료·가인, 브아걸)의 선택은 리메이크다. 2015년 이후 각자 다른 기획사에서 솔로 활동을 펼쳤던 이들이 오랜만에 다시 뭉쳐 선보이는 새 앨범에 신곡이 아니라 기존 히트곡을 엮어 담는다는 점이 이채롭다.

이들은 오랜 논의 끝에 28일 새 앨범 '리바이브'(RE-vive)를 발표하고 활동을 펼친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가요사를 빛낸 선배들의 히트곡을 모았다. 각 수록곡이 엇비슷한 분위기로 흐르지 않도록 윤상, 김현철, 이민수, 적재, 곽진언, 케이준 등 다양한 세대의 가수들이 각기 다른 시선과 느낌으로 편곡에 참여했다. 브아걸은 활동 당시 '센 언니' 이미지를 강조한 비주얼로도 인기를 모았던 만큼 이를 드러내는 두 편의 뮤직비디오도 제작해 자신들의 색다름을 담았다.

이는 오랜 시간 신곡을 기다린 팬들에게 아쉬움을 주는 대목일 수도 있다. 하지만 브아걸은 기존 히트곡을 자신들만의 색깔로 재해석했다고 자신한다. 브아걸은 24일 "우리만의 팀 정체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이들의 자신감은 1년 넘게 준비한 과정에서도 나온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의 조영철 대표프로듀서는 이날 "'리바이브'는 브아걸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명곡을 재연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브아걸과)10년 동안 함께 해오면서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였다"면서 "브아걸의 보컬과 정체성이 담긴 리메이크는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는데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밝혔다.



브라운아이드걸스

이와 함께 브아걸은 방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미스틱스토리 고두리 홍보팀장은 "오랜만에 '완전체'로 재결합했으니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동안 근황을 전하고 녹슬지 않은 입담을 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4

정원중, 차사고…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배우 정원중(59)이 차량을 몰고 가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24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정원중은 22일 오후 7시32분경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의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17)가 크게 다쳐 병원 이송 도중 숨을 거뒀다. 정원중은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원중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그가 출연 중인 KBS 2TV 주말극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측은 "하차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데이트 폭력' 30대 여배우 집유 2년

30대 연기자 A가 전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는 2017년 7월부터 교제해온 B씨와 지난해 10월 말다툼을 벌인 끝에 B씨를 차로 들이받으려 한 혐의다. A는 또 B씨를 폭행하고 스마트폰 단체대화방에서 B씨의 지인 80명에게 그를 비방하는 글을 쓴 혐의를 받았다. A는 이전에도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해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스 반 산트 감독 "지민과 일하고파"

맷 데이먼 주연 영화 '굿 윌 헌팅' 등을 연출한 할리우드의 명장 구스 반 산트 감독이 방탄소년단 지민에 '함께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다. 구스 반 산트 감독은 24일 나온 영국의 패션지 i-D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끔 평화로운 느낌을 가진 이들을 보게 된다. 지금 내게는 지민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민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고 싶지만 미래의 일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구스 반 산트 감독은 2003년 '엘리펀트'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박스오피스 1위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23일 개봉해 전국 1300여 개 스크린에서 14만9000여 관객(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모은 데 이어 24일까지 이틀 만에 30만 관객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흥행을 예고했다.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한 '82년생 김지영'은 한 평범한 여성이 겪는 성차별의 이야기를 그렸다. 남녀 관객의 관람평이 크게 엇갈려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